

지역 소식통

김제시, 의류 수거함 관리 민간위탁 5월부터 운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관내 주택가 의류 수거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업체와 협약을 맺고,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 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낡고 녹슨 재활용 의류 수거함을 새것으로 교체함과 동시에, 불법으로 설치된 의류 수거함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게고하고 계고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의류 수거함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할 계획이다.

이번에 설치한 의류 수거함은 오촌동, 신중동, 검산동, 교월동 등 시내 지역에 88개소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각 1개소씩 15개소, 총 103개소가 설치된다.

의류 수거함의 수거 품목은 의류, 신발, 가방, 커튼, 카펫만 해당된다. 그 외 솜이불, 베게, 방석 등은 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대형폐기물 신고를 통해 배출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과수 병해충 사전 예방 및 방제 나서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겨울철 이상고온과 봄철 잦은 강우가 지속되어 올해 과수 병해충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수화상병, 검은별무늬병, 나무좀, 응애 등 과수 병해충 사전 예방 및 방제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시 기술보급과 직원 20여명으로 구성된 병해충 예방단인 사전예찰을 한 결과, 일부 배 과원에서 검은별무늬병, 붉은별무늬병이 다발했는데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급격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 병은 개화기 전후 잦은 비가 내릴 때 발생 확률이 높는데, 병이 다발하면 과일 수확에 어려움이 있으니 발생 과원에서는 강우 시작으로부터 2~3일 이내 침투이행성약제로 방제를 실시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시는 병해충 사전방제를 위한 예산 4천만원을 투입해 오는 5월 중·하순 약충기에 공동방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5~6월 개최 축제 안전 강화

완주군, 어린이날 대축제·군민의 날·완주 대둔산 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지난 26일 완주군은 유희태 군수의 주재하에 김재천 완주군의회 의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관리 위원회를 열었다.

완주군이 5월부터 6월까지 잇따라 열리는 어린이날 대축제, 완주군민의 날, 완주 대둔산 축제의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6일 완주군은 유희태 군수의 주재하에 김재천 완주군의회 의원, 김효진 완주경찰서장, 송성일 완주소방서 대응예방과장, 김해은 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허광부 제9585부대 2대대 정작처장, 조성만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정기성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박용규 소방건축사 대표, 김현숙 의용소방대연합회 대장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관리 위원회를 열었다.

군은 오는 5월 4일 '제102회 어린이날 대축제'와 5월 11일 '제59회 완주군민의 날', 6월 8~9일 이틀간 '2024년 완주 대둔산 축제'를 연다.

참석자들은 다중 인파 밀집, 소방안전, 폭발 사고, 자연재해, 전염병, 테러, 교통 등 분야별 안전관리대책을 중점 심의했다. 군은 이날 나온 의견을 반영해 축제 분야별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할 방침이다.

특히, 축제 개최 전 가설건축물, 전

기, 소방시설물을 대상으로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유관기관(경찰, 소방), 군으로 구성된 합동 안전점검도 벌인다.

축제 개최 전일에는 행사장 내·외 안전관리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2023년 2,279만 명의 관광객이 완주를 찾았고, 올해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규모 인파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군민과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관람객 동선 관리와 안전요원 배치 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안전사고 없는 완주군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완주=염태복 기자



유희태 완주군수가 29일 확대간부회의서 직원들의 워라벨을 높일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유희태 완주군수, "직원들 워라벨 높인다"

간부회의서 일 가정 양립 문화 조성 강조

유희태 완주군수가 직원들의 워라벨(Work & Life Balance)을 높일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29일 유 군수는 확대간부회의의 통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직원들이 가족들과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올리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유 군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유 군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속한 공공재정집행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며 "부서장 중심으로 선급금·긴급입찰 등 한시적 특례 등을 적극 활용해 신속집행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5월 4일 '제102회 어린이날 대축제'와 11일 '제59회 군민의 날' 행사 등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유 군수는 "완주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5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행사 프로그램, 편의시설 등 행사 전 분야에 대해 세심히 점검·준비하고 전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완주=염태복 기자

김제시, 밭작물 재배단지 농작업 기계화 추진

주산지일관기계화 3개소 농기계 장기임대사업 확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농촌의 고령화 및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재배단지에 농기계 장기임대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모든 농촌에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농촌현장의 인력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기계화율이 98.6%인데 반해 노동력 투입이 많은 밭농업의 기계화율은

63.3%에 그치고 있다.

이에 시는 밭작물 재배단지의 기계화율을 높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주산지일관기계화 3개소의 농기계 장기임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시에서는 2019~2023년까지 5년간 8개소의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논, 콩, 고구마, 감자 등 밭작물 재배단지를 지원하였는데 올해에는 농림 2개

소, 영농법인 1개소를 선정해 논, 콩, 양파 재배단지를 지원할 예정으로 특히 양파의 정식과정은 기계화율이 12.2%에 불과해 사업 추진시 농업인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농촌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농작업의 기계화는 필수적인 상황에서 임대농기계 관련 다양한 사업들을 확대하여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사랑카드,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5% 추가할인 지원

5월 1일부터 시행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착한가격업소 등록 확대를 위해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 시 김제사랑카드 추가할인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물가 안

의 5%를 추가 할인해 캐시백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제사랑카드 착한가격업소 추가할인 지원은 이용자 혜택 증대와 함께 착한가격업소 매출 증대 및 등록 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수은 함유 의료 폐기물 거점 수거 처리

김제시 관내 보건소·의료기관 30개소, 혈압계 등 총 81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9일 관내 보건소와 의료기관 30곳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은 함유 의료 폐기물을 수거 처리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수은 함유한 제품의 제조와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2022년 7월부터 의료기관에서의 수은 함유 계측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혈압계, 체온계, 온도계 등 수은을 함유한 의료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해당해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개별 처리할 경우, 높은 수집·운반 비용이 들어 의료기관에서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에 시는 의료기관, 수집·운반업체와 사전협의를 통해 거점 수거 방식으로 수은 함유 의료폐기물 81점을 수거 처리함으로써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

어주게 됐다.

시 청소자원과 관계자는 "이번 수은 함유 의료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거점 수거 처리는 배출자의 복잡한 행정처리 절차를 해소해 주었다"며, "앞으로도 배출자의 처리 부담 완화와 유해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여 김제시 환경보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점 수거는 개별 폐기물 배출자가 거점장소까지 의료 폐기물을 직접 운반, 일괄 수거·처리 방식으로 의료기관별 개별 수거·처리보다 비용을 약 85% 절감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